

틀에서 벗어나기 II.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과 제거해야 할 경계선

1. 지켜야 할 경계선과 제거해야 할 경계선

(1) 지켜야 할 경계선

경계선은 구분을 나타낸다. 이 구분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가치가 존중되는 경계선을 말한다. 예를들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몸이시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이 다르다. 세 분이 한 분이시지만,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한 몸 안에서의 '구분'을 말한다.

[고린도전서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25-26]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생명력 있는 구조는 '몸'이다. 이 '몸'의 특성이 있다. '각 지체'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각자 다른 지체가 있다.

ㄱ) 12절 -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ㄴ) 25절 - 여러 지체를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는,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분쟁의 해결)

즉,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교회는 각 파로 나뉘어 분쟁이 있었던 교회였다)

ㄷ) 26절 - 생명력 있는 몸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한 몸 안에 구분을 두셨다. 이 구분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며, 획일적으로 독창성 없이 통일된 존재가 아니다. 예를들어 하나님과 사람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이루는 존재이다. (포도나무 : 예수님 / 농부 : 하나님 / 사람 :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이 존중되는 구분의 경계선은 아름다운 것이다. 한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다르다. 각자의 역할이 존중될 때, 그 경계선은 아름다운 구분이 된다.

(2) 경계선을 넘어서려는 시도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구분(?)을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존재의 경계선을 넘어서었다. 그래서 타락 천사로 하늘에 쫓겨나게 되었다. 그 타락 천사는 사람에게 와서 경계선을 넘도록 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분하신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

[창세기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악을 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분명한 경계선을 두셨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경계선을 그으셨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을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지켜왔다.

창세기 3:5절에 보니 마귀는 미혹함으로 경계선을 넘을 것을 말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의 미혹의 목적은 명확하다. 경계선을 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경계선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창세기 3:6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안에 ‘탐욕’이 생겨났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경계선을 넘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게 했다.

(3)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은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즉,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안전감’을 준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안전한 경계선이다. 안전한 피난처요, 성과 같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경계선’에 관한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할 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 압살롬이 자녀의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그는 아들이 아니고 반역자가 된다.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 아버지의 경계선을 넘어선 압살롬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경계선을 넘어서라 한다. 엄청난 유혹과 미혹의 시대이다.’ 말씀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선이 우리를 속박하는 도구라 말한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벗어나라 말한다. 이 소리는 에덴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을 유혹했던 음성과 다르지 않다. 이 소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했던 마귀의 음성과 다르지 않다.

2. 제거해야 할 경계선

(1) 십자가 위에서 죄의 경계선을 허무시다.

반면에 지워야 할 경계선도 있다. 인간이 경계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경계선이 만들어졌다.

[이사야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악의 경계선 아래에서 사람은 고통을 경험한다. 죄책감, 열등감, 비교의식, 수치심에 사로잡힌다. 자기를 찾지 못하고 허무해 한다.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학대한다. 피곤하게 한다. 지치게 한다. 이 모든 고통의 경계선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우셨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받아 경계선을 허무셨다.

(2) 하늘과 땅이 하나되는 일

[에베소서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연적인 세계를 넘어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혼과 육의 영역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닌 오순절 사건 이후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처럼, 초자연적 영적 세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한계’의 경계선을 허물라.

(3) 인위적으로 만든 경계선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인간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인위적 경계선을 만들었다. 그 경계선 안에서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잃었다. 몸이 아닌 조직을 만들어 사람을 통제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의 개성을 죽였다. 특히 교회 안에 조직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경계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한다.

사람이 조직을 위해 만든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몸이 되어야 한다. ‘틀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옳다고 인식했던 모든 경계선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짜 생명력 있는 좋은 경계선인지, 아니면 조직 관리를 위해 만든 경계선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